



J E O N B U K D E V E L O P M E N T I N S T I T U T E

| 열린단상

창간 1주년에 부쳐

“암묵적 지식을 전파하는 메신저 역할”

CONTENTS

- 1_ 열린단상
- 2_ 연구원 리서치 1
- 3_ 연구원 리서치 2
- 4_ 연구원 리서치 3
- 5_ 해외 리포트
- 6_ 심포지엄 지상중계
- 7_ 워크샵 지상중계
- 8_ 연구원 소식

전북발전연구원의 유일한 소식지인 열린뉴스가 지역혁신사랑방 역할을 자임하고 창간한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린뉴스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지난 1년 동안 열린뉴스를 통해 그 때 그 때 지역의 핫이슈나 핵심현안 등을 학문적 토대위에서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대안을 연구함으로써 타당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 연구원이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에서 제안된 토론내용을 지상중계하고 특정현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콜로키움을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지식확산과 정보 공유의 매개체로서 연구원과 산학관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개자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3월 전북의 종합발전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범한 전북발전연구원은 창의성과 실용성을 모토로 전라북도의 최고위 지식연구기관으로서 시대변화의 메시지를 찾아 지역혁신을 선도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미래비전을 창출하는 유일한 싱크탱크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북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세련된 일자리의 창출과 쾌적하고 청정한 정주환경의 조성은 아름답고 특색 있는 살기 좋은 전북 만들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이를 위해 지역현안에 대한 연구와 여성, 노인 등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등 실현가능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무한

경쟁시대에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의적 연구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연구원은 또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식기반시대 경쟁력의 원천인 인재육성을 위해 지역혁신협의회와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혁신주도형 지식산업기반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 총체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관련 사업으로 국경, 업종 간 구분이 따로 없는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크고 작은 국제학술행사를 유치, 지역의 문제를 지역적이고 경직된 시각에서 벗어나 열린 시각으로 유연성 있게 접근함으로써 지역의 세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제 민선 4기 지방자치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앞으로도 그동안 쌓아온 지식연구기반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연구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열린뉴스는 연구원과 도민들의 연결고리로서 다양한 생각과 지식, 정보를 원활하게 유통하는 충실한 메신저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열린뉴스는 도민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열린뉴스를 통해 지식과 정보가 물흐르듯 유통되고 혁신주체 간 암묵적 지식이 확산됨으로써 지역혁신이 모닥불처럼 왕성하게 번져 나갈 수 있도록 열린 지면을 충실하게 꾸며나가겠습니다. 혁신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선정과 추진방향



농림부는 지난 8일 전국의 20개 권역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006년 기본계획수립 대상지역으로 선정 발표했다. 전라북도에서는 남원 아영면 흥부골 권역과 진안 동향면 능길권역, 임실 삼계면의 박사골권역 등 3개 권역이 올해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지난 2월 도내 농촌지역개발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7개 권역 가운데 3개 권역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구로 농림부에 신청하였고, 농림부는 각 도에서 올린 전국 30개 권역 및 전년도 탈락한 5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국농촌공사와 외부전문가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20개 권역을 신규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첫 해인 2004년에 선정된 고창군 공음면 선동권역, 부안군 보안면 우동권역, 남원시 사매면 혼불문학권역, 김제시 광활면권역 등 4개 권역은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05년도 선정된 정읍시 칠보면 태산선비권역, 무주군 설천면 청량권역, 군산시 나포면 금강철새권역, 장수군 산서면 오산권역은 기본계획을 마치고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농촌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농림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이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생활권 및 영농권이 동일한 3~5개 마을(법정리 기준)을 소권역으로 묶어 마을별 특성과 잠재자원을 활용,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권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해가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권역당 3~5년간 국고 80%, 지방비 20% 비중으로 70억원이 지원되며 전국적으로 1,000개 권역에 총 7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지원금액은 권역의 규모, 가구 수, 사업내용, 유사정책사업 지원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동 사업을 통해 마을도로나 주차장 등 기초생활 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은 전액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며, 최소 5인 이상의 법인격 조직이 시행하는 공동소득사업은 부지와 시설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특히 이 사업은 주민과 지자체 지역개발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까지 함께 참여하는 상향식 사업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정주권 개발에 치중한 기존사업과 달리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지역의 잠재자원을 활용, 농가 소득증대와도 연계하자는 취지도 담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기초생활정비,

경관개선, 공동소득기반 확충,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촌을 단순 식량 생산공간이 아닌 전원주거·휴양·전통문화 등의 기능을 갖춘 쾌적하고 농촌다움을 지닌 미래형 복합생활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새로운 농촌개발 수요에 맞게 농촌 어메니티 자원과 지역개발을 연계시켜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확장한다는 개념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무엇보다 주민과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발전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등 이들 스스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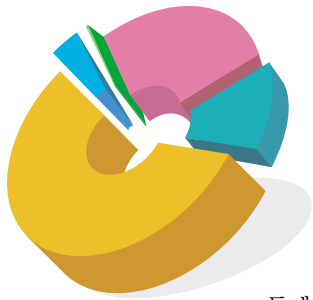
2004년 선정된 16개 권역 사업이 지난 해 전면 보류되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역역량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칫 길 닦고 지붕고치고 건물이나 짓는 하드웨어적인 투자나 지자체의 생색내기식 사업에 치중할 경우 본래의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립된 사업계획은 아무리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다 해도 지속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는 지역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가장 잘 아는 주체도 지역 주민들이며 가장 좋은 아이디어도 주민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사업의 시스템과 추진주체 등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바로 인력육성이다. 실제로 지역의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 지역 리더의 역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 더불어 지역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이 사업은 선정된 소권역 내에서 마을별로 나눠 먹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이 아니다.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정부에 의지하려는 의타심을 버리고 이 사업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 주체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마을과 소권역의 공동사업을 위해서는 스스로 희생할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우리나라의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시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사업에 대하여 실천적인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 사업을 농림부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기본계획수립회사 그리고 주민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를 지정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산업·경제연구팀장 | 이승형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통계의 개선방안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평가하여 객관적인 현황파악 및 발전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지역통계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역통계의

필요성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왔고 지방자치 실시 이후 더 많은 요구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지역통계기반을 개선하고 통계의 작성 및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이점이 각 지역 고유의 장점과 특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면, 지역의 실상에 대한 정확하고도 상세한 통계자료가 없이는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통계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역통계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과 사용자들의 통계에 대한 인식전환과 홍보가 중요하다.

둘째, 지역수요에 맞는 다양한 양질의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 양질의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보강과 확보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며 구조적인 오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계전문가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에 꼭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지역주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통계수요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통계의 개발과 기존 지역통계의 재정비를 추진해야 하며 새로운 지역통계의 개발은 기존의 보고통계 중심의 정태적 통계생산에서 지역사회발전계획과 관련된 각종 통계지표를 확대 개발하고, 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통계의 개발 등 지역사회의 불균형을 측정할 수 있는 동태적 지역통계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소비를 반영하는 통계와 3차 산업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를 생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지역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통계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발전적인 적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집계표 등 통계수집과정 전 분야에 대한 전산화(일부 시행되고 있지만)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지역통계의 활용적 측면을 강조하여 일반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도구(GIS등)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계작성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지역통계작성에 대한 정책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고 통계청에서 기술지원을 하는 형태로 지역통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인력과 예산의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차원

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협조를 통하여 필요한 지역통계의 종류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 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작성이 되는 통계 중 지역통계가 생산되지 않는 부분은 중앙에서 적극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세워 지역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지역통계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연구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역통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체 중의 하나는 지역발전연구원이며 양질의 연구를 위해서는 양질의 다양한 통계가 작성될 필요성이 있다. 지역통계의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인 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계수요자들이 통계를 검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를 위해 연구원내에 통계요류신고센터(가칭)를 운영하여 통계연보 등 각종 도/시군 통계의 오류를 파악하여 도 통계담당계와 통계청과의 협력을 통하여 보다 나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타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연계하여 통계요류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지역통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가공통계의 작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작성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GRDP의 경우 공식적인 GRDP는 보통 년도 보다 2년 후에 발표되므로 이러한 시차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추계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며 표본이 적은 경우에는 표본조사 결과에 보조정보를 이용하여 소지역별로 자료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법인 소지역추정기법 등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행정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은 작성통계의 양을 확대시키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되며 사장되었던 자료나 보고자료 중 지역통계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를 발굴·통합 관리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장된 통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행정통계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통계정보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통계작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역의 정보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연구기관, 교육기관, 전라북도청과 각 시/군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실무담당자의 다양한 보고통계가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 이 강 진

관광개발과 지역주민 참여

관광개발이 지역의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여건을 변화시킴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일반적인 믿음은 지방정부가 지역개발수단으로서 관광개발을 선택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전라북도는 시대변화에 따른 관광수요를 충족할 만한 청정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관광개발을 통한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 무주관광레저기업도시, 군산국제 해양관광지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도 지역이 보유한 자연과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광개발을 수행하며 지역의 재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개발을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표출되거나, 지역발전과 연계시키지 못하여 실패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이는 관광개발을 통해 성공적인 지역발전을 이루는데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원은 바람직한 관광개발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역할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관광지는 관광의 기반인 동시에 지역주민의 거주지이고, 지역주민은 관광객이 가지게 될 관광경험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관광개발은 지역주민과 지역정부간의 불신을 야기하고, 결국 이는 관광객의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선행 관광개발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관광개발이 부정적인 효과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근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도하여야 한다.

이는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지각과 이 가운데 현저한 영향요인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바람직한 관광개발과 이를 위한 지역주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관광개발의 전제조건임을 시사한다.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인구통계적 특성이나 관광중심지와 지역주민의 거주지와 거리, 거주기간, 지역에 대한 애착, 관광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관광개발 진행 상황 등에 따라 관광영향지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지각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요컨대 관광개발을 통한 개인적 혜택여부가 가장 민감한 영향변수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영향지각은 연구지역과 연구자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정책수립과 적용에 차이를 두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일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과 사회표상이론(social representation theory)이 이용되고 있다.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관광현상 속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은 관광경험과 관광효과라는 유형, 무형의 자원을 교환한다. 이때에 지역주민은 관광을 통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의 종합적인 인식과정을 통하여 관광에 대한 영향인식과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으로, 호혜의 원칙을 유지하면 지역주민의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회 표상이론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현실에 대해 해석하고 현실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사회적 표상은 사회적 관심

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이 역사와 문화적으로 구성된 지식과 신념 체계의 총체이며, 사회구성원들은 사회적 표상을 통해 사회적 대상과 현상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사회적 표상은 특정한 사회적 대상에 의하여 개인의 심리 속 표상화 또는 개념화된 사회적 인지와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역사회는 지역의 의견을 표현하는 살아있는 사회적 집합체이며, 지역주민은 자신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계층 또는 주요영향인사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이라 인식하고 행동하게 한다는 것으로, 관광개발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응용이 가능한 이론이다.

이러한 연구이론의 결과를 전북 지역에 반영하여보면,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인구통계적 특성뿐만 아니라 관광인식 특성별로 세분된 집단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즉, 관광영향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주민 집단과 부정적인 주민집단을 분리한 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한다면 먼저, 관광개발을 통한 영향지각을 긍정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하여 경제부문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보장 측면에서의 정책적 교육이 필요하다. 즉, 지역공무원과 관광관련 기업인이 참여하는 지역주민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역주민을 교육하여 관광산업과 관광개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지역의 여론을 형성하는 지역 언론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여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둘째, 지역주민이 관광개발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도록 지역주민 공청회(간담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인 지역주민 공청회는 지역주민에게는 관광개발의 진행상황과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관광개발자는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이 관광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을 확대하여 긍정적인 관광개발 영향 지각을 형성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을 통한 경제적인 부분과 사회·문화적인 부분에서의 편익제공도 필수적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주민이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예를 들면 생태체험마을)을 설립하고, 공동의 관광사업을 관리하거나 일정한 비율만큼 지역주민이 운영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편익은 지역주민의 여가기회 증대를 위하여 관광수익의 일부를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시설을 건립하는데 사용하거나, 현재 관광시설에 대하여 주민활용이 용이하도록 할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주민 중심의 구체적인 실천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아무리 훌륭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동의나 지지 없이는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주민참여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문화·관광연구원 | 최영희

러시아 과학기술연구소를 가다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전라북도와 같이 산업발전이 부진한 지역의 경우 과학기술에 기반 한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은 그동안의 부진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그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협력은 과학기술 기반이 취약한 전북의 과학기술력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정책 추진의 중요한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국제과학기술협력에서 러시아는 협력대상국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 중의 하나이다. 러시아는 개방이후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침체로 인해 구소련시절에 비해 과학기술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지만 여전히 세계적인 과학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선진국이다. 특히 원천기술의 습득에 있어서 러시아는 우리와 협력을 추진하기에 좋은 여건들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미 국교수립(1990. 9) 직후부터 정부 차원의 최우선과제로 대러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여 '한·러과학기술협력 협정(1990. 12 체결, 1991. 12 발효)'을 체결하였다. 이와 함께 삼성, LG 등 민간기업들 역시 러시아 현지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운영하고 기술개발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필자는 지난 5월 전라북도의 산업육성과 연계하여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러시아의 생화학문제연구소(Institute of Biomedical Problem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IBMP), 이오페물리공학연구소(Ioffe Physico-Technical Institute: IOFFE), 결정학연구소(The A.V.Shubnikov Institute of Crystallography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IC RAS)등을 방문하였다.

생화학문제연구소는 1963년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우주 생의학 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우주 생의학 기초연구와 이와 관련한 응용분야인 우주공간에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건강, 안전문제 등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정읍방사선연구원과 한국인출신 우주인에게 공급할 우주식품개발에 관한 연구협력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전통식품을 우주선에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식품가공, 포장, 보관 등 관련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군용식량이나 비상식량 등 장기보관 및 소형화 등이 필요한 분야의 식품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결정학연구소는 1925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결정학분야 전문연구소이다. 이 연구소의 전통적 강점 분야는 결정체 성장, 결정체 구조 및 특성 분석이다. 최근에는 유기 및 무기재료 연구와 관련 장비에 관한 연구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나노구조분석 및 특성 평가와 부품화 분야에서 연구협력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자동차부품 및 기계분야, 연료전지분야 등의 소재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오페물리공학연구소는 1918년에 설립되었으며, 종합기술대학으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 연구소는 LD(레이저 다이오드)의 기본구조를 발명하는 등 광학 및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공동연구실을 설립하여 LED분야의 연구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산하에 나

노, 반도체, 플라즈마분야 등의 연구센터들을 두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나노조영제, 나노소재 등의 연구와 관련하여 협력이 가능한 연구소이다.

이들 연구기관들은 한결같이 연구성과 및 연구역량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전라북도와 연구개발 협력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러시아의 연구기관 구조조정과 관련된 문제이다. 러시아에서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의 하나로 연구기관의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대한 과학기술조직을 개편하고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선택적인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의 잠재력을 유지·발전시키려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들은 성과제고의 한 방안으로 국제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연구개발성과의 산업화에 대한 요구 때문이다. 러시아 정부는 국가 경제발전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연구결과의 실용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정부는 공공부문 연구개발기관과 민간기업을 연결시키거나 참여시키는 목적지향적 내지 시장지향적 과학기술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들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기록된 연구성과의 산업화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셋째는 연구개발비 확보의 필요성 때문이다. 러시아는 개방이후의 연구개발예산 축소로 인한 국가과학기술기반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별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배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부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분야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의 경우 연구개발비 확보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러시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전라북도와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다수의 우수한 연구기관들을 보유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은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생물산업과 같은 전통기반산업과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산업과 같은 신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육성하기 위해 전통기반산업의 경우 연구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신산업의 경우 연구개발역량의 강화는 산업발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러시아의 나노, 소재 등 세계적인 연구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협력은 전북의 과학기술역량 강화와 산업육성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러시아 연구개발기관의 동향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 | 김진석

전북·충남 RHRD 해외이주 결혼가정 지원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방향과 과제 심포지엄

지역인적자원개발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 유통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전북·충남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는 각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체들 간의 교류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사업 연계·협력관계 구축의 용이성을 제공하고자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해외이주결혼가정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5월 19일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해외이주결혼가정지원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논의로 교육인적자원부 승용배 정책조정과장, 여성가족부 이성미 가족문화팀장, 박재규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윤애란 우리가족상담센터소장, 이현선 정수민들레결혼이민자센터장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본란은 이날 토론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註

최근 미 풋볼 슈퍼볼 MVP 하인즈 워드 선수의 방한과 더불어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해외이주결혼가정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인 선택을 뛰어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거 유입되고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등 다문화·다인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배타적·차별적 의식과 제도, 타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차별 대물림과 인권침해 등의 경우가 뚜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해외이주결혼가정의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제한적인 관심으로 언어 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를 보이는 등 정서장애도 나타나며, 교과서를 비롯한 교재와 교사들의 태도가 다문화주의를 포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차별'과 '배제' 때문에 아동들이 조기에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은 극히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지역적인 정책대응은 중앙정부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발맞추어, 교육인적자원부의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의거한 소외계층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 제고로 해외이주결혼가정에 대한 각종양부처의 협력적인 정책방향이 설정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률적·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해외이주결혼가정 자녀의 상당수가 한국어 능력부족 및 한국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습부진과 사회적 편견에 따른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교육복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교육 양극화 방지에 대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초등학교 교육 자체를 다문화민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대학·언론·NGO 등의 참여에 대한 홍보가 진행중이며, 각 지역마다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킬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국가 간 인적교류의 증가로 인하여 해외결혼이민자가정의 빈곤상태 및 여성의 지위하락으로 문제가 대두되면서, 해외이주결혼가정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전국 21개에 개소하여 국비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30개소는 지자체의 자체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센터는 이민자에게 거주지 정보제공,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커뮤니티 형성 지원, 정책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지방간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준비중이고, 이와 관련이 있는 여성회관·여성인력개발센터·보건소 및 지방의료원의 사각지대 정책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가정방문 한국어 교육, 출산 전후 가사도우미 지원, 국제결혼 부부교육 등도 추진 중이다.

이와 발맞추어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전라북도의 추세는 주로 농촌 지역에서 해외이주결혼가정이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고유한 농촌지역 문제인 사회적 빈곤과 문화적 소외까지 더해져 있어서 어려움이 더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장수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찾아가는 민들레 교실' 사업은 해외이주결혼가정을 위한 두 가지의 큰 의의를 부가하

고 있다.

첫째, 해외이주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미봉적인 동화정책이 아닌 문화다원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한글 교육 수준을 넘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자녀를 잠재적 문제 집단이 아닌 미래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이중-삼중언어교육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었다.

둘째, '찾아가는 민들레 교실'을 통해 실제로 교육을 통한 변화과정을 고찰하면서,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주지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의 큰 틀을 중심으로 가정방문교육과 여타의 교육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결합하여 배치되어서 프로그램의 배가 되는 효과를 누렸으며, '장수 민들레문화교육 아카데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가지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7주 간의 일정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면서 진행된 이 사업은 가족 중심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으며, 어머니의 나라 언어를 이해하면서 다문화주의의 결합을 시행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첫시도였다.

또한 충청남도는 여성 가족부에서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부를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소로 '아산 우리 가족상담소'를 선정하여, 2006년 1월부터 해외이주결혼여성을 위한 무료 한국어 교육 및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충남에 거주하는 해외이주결혼여성들에게 한국어는 물론 한국문화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주여성이 지역 전문 인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여성결혼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의 초점은 한국어 교육에 대한 문제로, 좋은 부부를 위한 의사소통의 단절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이로 인한 가족간의 단담형 대화로 인한 오해 등이 불화가 형성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주로 한국사회 적응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5가지의 모듈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 남편들의 모임으로 외국인 아내와 살면서 좋은 점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둘째, 생활문화교육으로 요리교실, 셋째, 화장품 회사 등의 방문으로 한국을 이해하는 산업문화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넷째, 병원·놀이방 등 기본적인 시설 이용에 대한 제도문화교육과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상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위의 5가지 모듈의 프로그램이 향후 지속적인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지역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였다.

이와 같이, 해외이주결혼가정에 대한 지원은 중앙-지역의 연계와 협력 속에서 지속적인 정책의 관심이 절대적이며, 개인의 독립적인 인격을 존중하면서 인적자원개발의 종합적인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제시에 대한 열린마음이 시급함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여성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샵

본원 여성정책연구소는 6월14일(수) 본원 회의실에서 전북지역 여성단체장 및 실무자, 5.31 지방선거에 당선된 여성 시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여성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샵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차원에서 각 여성단체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를 연구과제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책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여성정책연구소는 2005년과 2006년의 연구사업의 내용을 소개하였고, 많은 여성단체들 중 협의체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YWCA등이 각 단체의 2006년 사업과 활동상황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본란은 이날 토론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했다. 편집자 한



우선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조금숙 회장은 「전북여협 정치교실」, 「부부대화 프로그램」, 「전북여성영화제」, 「전북여성합창대회」, 「저출산 대책 사업-행복한 출산상」, 「우리축산물 팔아주기」,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관련된 사업소개와 함께 예산상의 어려움을 피력하였으며,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전북여협의 사업계획 중에서 저출산 문제와 국제결혼 이주여성문제 등은 본 연구소에서 이미 수행했거나 향후 정책포럼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어서 전북여성단체연합의 노현정 사무처장은 지자체 성인지적 예산과 정책분석, 여성관련 조례 제정 활동(보육조례 및 여성발전조례), 여성빈곤문제 연구, 빈곤아동의 방과 후 교육향상 실태조사, 이주여성 실태 및 지원방안을 위한 활동, 전북지역 여성운동 과제개발 등을 위한 정책협의회 등이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전라북도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제안하였다.

여성단체연합은 특히 여성정책연구소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의 제언을 전달하였다. 첫째, 연구소가 철저한 내부 평가를 선행함으로써 민선 4기 새롭게 정비되는 시기에 여성정책연구소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둘째, 지난 통합 때 약속 받았던 독립적 재정 운용을 요구하였다. 셋째, 각 연구원들의 연구 분야가 확실하게 정해져서 목적이 분명한 팀제를 운영하여 전라북도 여성정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여성정책 방향 및 의제를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넷째, 팀별 연속과제 및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여성단체와의 간담회, 여성가족과(행정)와의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여성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연구과제로 전라북도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구축 및 성인지적인 지역통계 개발, 전북의 여성교육훈련기관 프로그램 분석, 전라북도 보육육구 조사, 전라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전주 YWCA의 신수미 회장은 “여성이 만드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대 주제 아래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첫째는 ‘건강한 생활공동체 만들기’이다. 이와 같은 주제를 통해서 바른 건강문화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통합적 가족 서비스 구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둘째는 ‘50:50 사회 만들기’이다. 여성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과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활동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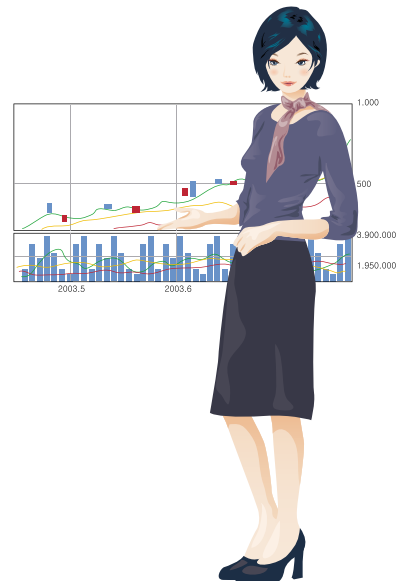
가정과 직장의 양립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서비스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 셋째는 ‘평화세상 이루기’이다. 이를 위해서 폭력근절을 위한 예방 및 대책 마련 활동, 인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운동 및 지속적인 평화통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성정책에 대하여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 및 사업내용이 요보호 여성들에 대한 대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반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여성 지도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하였다.

그 밖에 정치관련 단체의 장들은 각 단체의 간략한 사업소개를 통해서 차세대 여성 리더 양성, 여성유권자들에 대한 의식 교육, 법적·제도적 장치의 문제 등을 거론하였으며, 당선자들은 소속 의회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다는 다짐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서 여성단체들이 고민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그동안 연구소에서 해 왔거나 향후 계획하고 있는 주제들과 대부분 맞물려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2007년에 마무리되는 제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와 각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작업은 특히 여성가족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소에서 향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워크샵은 연구소와 여성들의 현장 활동을 매개시키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이며,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살아 있는 정책연구가 되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한 자리였다.



▣ 전주광역시 도시계획 수립 워크숍

본원은 지난 6월 8~9일 본원 회의실에서『전주 광역권 도시계획의 공간구조구상 및 발전전략』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전주문화재단 장명수 이사장 사회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의 공간구조구상 및 광역도시계획시설 배치 등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전반적 내용의 심층적 토의가 있었다. 본원, 국토연구원, 대우엔지니어링 등 3개 기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등 5개 시군과 도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왕궁 특수지역...”과제 최종보고

본 원은 지난 6월 14일에 강현욱 전라북도지사에게 ‘익산 왕궁특수지역 개발 타당성조사 및 개발구상’ 위탁수행과제와 관련하여 최종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주요보고 내용은 특수지역 개발 대상구역의 결정을 위해 왕궁특수지역내 3개 농장을 포함하면서 구역을 최소화하는 대안과, 3개 농장과 주변 축산농가 등을 포함하는 구역 최대화 대안을 제시한 것 외에, 왕궁특수지역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과 환경기초시설 중복투자, 그리고 국고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차 여성정책 포럼 개최

- 주 제 : 방임되는 아이들, 아동의 권리 찾기
- 일 시 : 2006년 6월 28일(수) 14:00 ~ 17:00
- 장 소 : 전라북도청사 중회의실(3층)
- 참석대상 : 아동복지전문가, 아동복지시설 관련활동가(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초등학교 교사 등 100명

➔ 지역혁신협의회 소식

- 5.16 기획전략분과회의(본원 회의실)
- 성공적인 혁신도시 기본구상안 설명과 2007년 균특회계사업 심의
- 6.2 문화관광영상분과협의회의(본원 회의실)
- 「지역축제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06년 제1차 세미나
- 6.12 분과위원장 회의
- '05년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 분석 보고서(지역혁신계정사업 지역단위 평가)에 대한 지역혁신협의회회의 의견서 작성, '06년도 분과협의회의 연구사업 추진계획 협의
- 6.20 미래성장산업분과 회의(본원 회의실)
- “ '06년 전라북도 RIS특성화사업으로 선정된' 닥섬유제품산업 지역혁신체계구축 사업(니트산업연구원)에 대한 발표 및 토론
- 지역혁신박람회 전라북도 예선대회 개최 및 지역혁신 우수사례 공모
- 11월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제3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출품을 위한 전라북도 지역혁신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지역혁신박람회 전라북도 예선대회'를 9월 5일 개최할 계획임
- 이번 예선대회에 출품할 우수사례에 대한 공모계획은 협의회 홈페이지(www.jbriic.net) 및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provin.jeonbuk.kr) 등에 게시하였음. 응모사례 접수기간은 8.10~8.18일.

「전북발전포럼」 원고모집

- 원고성격 : 지역현안 등과 관련된 칼럼, 논문 등
- 제출기한 : 수시모집
- 제출방법 : 이메일(이메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디스켓과 함께 제출),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소식

전북·광주전남 RHRD 공동 심포지엄 개최

- 목 적 :
- 호남권의 공통적인 지역산업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지역 정착형·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 모색
- 주 제 : 호남권 자동차/기계 산업 인적자원개발 성공사례분석 및 경쟁력 강화방안
- 일 시 : 7.25(화) 오후2시30분
- 장 소 : 전라북도청 중회의실(3층)
- 참석대상 : 전국 인적자원개발센터관련자, 시·도 인적자원개발담당자, 자동차/기계산업 관련기관, 금형산업관련기관, 각 대학 산학협력단, 도민 등 60여명
- 주 최 : 전라북도, 전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 주 관 : 전북, 광주·전남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 전북발전연구원 홈페이지 개편



홈페이지 주소 <http://www.jd.re.kr>

전북발전연구원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다.

본원은 전라북도 도정전반에 각종 과제 및 도정현안 사업에 대해 연구·조사하는 출연연구기관으로서 도민 여러분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연구원의 간행물, 연구보고서, 세미나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장이 될 것이다.

연구원 동정

- ◎한영주원장은 6월 9일~10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 ◎한영주원장은 6월 12일 전북중앙신문 주최로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민선4기 전북발전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글로벌시대 전북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
- ◎전정희여성정책연구소장은 6월 2~3일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주관으로 개최된 “전국 지자체 여성정책연구기관 네트워크”에 참석.
- ◎이강진 연구위원은 6월 9일 제주도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 정기총회 세미나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통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

알림 「연구과제」 공모

연구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본원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등을 송부해 드리며, 심사를 거쳐 공동연구참여 등의 기회를 드립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홈페이지 www.jd.re.kr(연구제안)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